

# 신안신의중,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와 함께한 진로체험

### 신의중 1학년 학생 대상, 광주에서 진로 체험학습 실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문해력, 코딩/SW 재미있게 체험

신안신의중학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광주에서 진로 체험학습을 하였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한 삼성드림클래스 여름 캠프에 참가하였고, 11일 캠프가 끝나고는 학교 자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광주 유스퀘어에서 진행하였다.

신안신의중학교는 여름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경험을 시켜주고자 진로 교사와 1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인솔

하였다. 특히 전남 신안군에서는 신안신의중 학교가 유일하게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에 참가하였다.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삼성드림클래스 여름 캠프는 3박 4일간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문해력, 코딩/SW를 재미있게 체험하였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법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1일 여름 캠프가 끝난 후 배 시간 때문에 바로 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서 별도

로 진로체험을 계획하였다. 신안신의중 진로 교사와 1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광주 유스퀘어로 이동하여 각종 문화공간(VR 체험, 미술관, 서점 등)을 체험하고 저녁에는 연극을 관람하였다.

이번 4박 5일간의 진로체험 학습에 참여한 1학년 이하람 학생은 “방학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중학교 3년간 꿈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 같다. 캠프와 진로체험 때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서 학업과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신의중학교 백미득 교장은 “3박 4일간의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를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삼성복지재단 관



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학 중임에도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인솔하고 진로 체험까지 시켜 준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학기 때도 진로 체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해남 어란진초, 소규모 학교에서의 학생 맞춤형 독서 인문 교육



해남 어란진초는 지난 7월 11일, 전라남도교육청이 강조하는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의 일환

### 전라남도교육청이 강조하는 독서인문교육 활성화의 일환

으로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신장하고자 한 학기 한 권 읽기 대상 책을 활용하여 독후화 그리기 등 독서교육주관을 마련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저학년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라스틱 인간’ 책을 읽고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게 된 후, 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고학년은 사회 교과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과거 시대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몽실 언니’ 책을 읽고 독후화 등으로 직접 표현해 봄으로써 독서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되

었다는 소감을 들었다.

학생들의 작품을 복도에 전시함으로써 교직원 모두 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시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칭찬 스티커를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 인문 교육의 장이 되었다.

더불어 내교하신 학부모님들도 직접 작품 선정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공동체를 이뤄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중, 영상제작캠프 ‘shooting’



장흥중학교에서 영상 제작 마을학교와 학교가 함께 영상 제작캠프를 협력 운영하여 향원중학교 학생들과 장흥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영화와 뉴스를 만드는 캠프를 진행하였다. 현지 감독과 PD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었고 시나리오 작성과 카메라 작동법 그리고 촬영 방법

등을 가르치며 짧지만, 영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두 편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한편을 촬영하여 영화로 만들어 교장선생님과 함께 시사회를 했고 다른 한편은 학기 중에 촬영하여 영화로 만들도록 학생들에게 숙제로 남겨 놓았다.

방학 중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간을 내어 처음 접하는 어려운 시간임에도 집중하는 모습 속에 꿈틀거리는 열정을 찾게 되었고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을 두고 참여하게 되며 작품을 완성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 보성영재교육원, 창의·융합형 ‘학기제 주제집중과정 캠프’ 운영

### 다양한 분야 전문성 갖춘 교육자원들 참여해 교육 경험 제공

보성영재교육원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영재교육 학기제 주제집중과정을 운영하였다. 초등부는 지난 1일(화)부터 3일간 관내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별교지역에서 운영하였고, 중등부는 7일(월)부터 3일간 관내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보성지역에서 운영하였다.

기존 주제집중과정은 중학생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별교지역 학생들의 영재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생 4~5학년 1학급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과정에서는 △Algeomath와 스트링아트 신재생 에너지 키트 제작(이지메이커) △ 종이비행기의 비밀 △생활비서 챗봇 만들기 △Notion 학습 플래너 제작 △AI와 디자인 △디지털 드로잉(웹툰 제작) △인공지능과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융합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전담 교사들과 외부 프로그램 전문가, 순천 웹툰 센터 소속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원들이 참여하여 학생에게 다채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하였다.

학기제에 참여한 참여한 별교초 한 학생은



“신재생 에너지 키트 만들기와 종이접기 등이 재미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성영재중 한 학생은 “웹툰 작가와 직접 만나 드로잉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보성=김택순기자

## 장성교육청, 장성교육 발전 유공자 연수

장성군에는 장성(將星)들이 많이 있다. 상무대에 가면, 6명의 별을 실제로 볼 수 있다. 교육청 산하에도 19명의 별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교장, 교감, 행정실장 제외)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장성의 별」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4박 5일 동안 2023. 장성 교육 발전 유공자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재양 교육장은 “이번 장성 교육 발전 유공자 연수는 장성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그 답례로 선진지를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



여 사기를 복돋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무사히 안전하게 연수를 마칠 수 있게 함께 해주신 연수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 장성의 별」 19명의 심신이 충전되어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성=김수권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